광주 '여성안심귀갓길' 55곳 지정에도 불안감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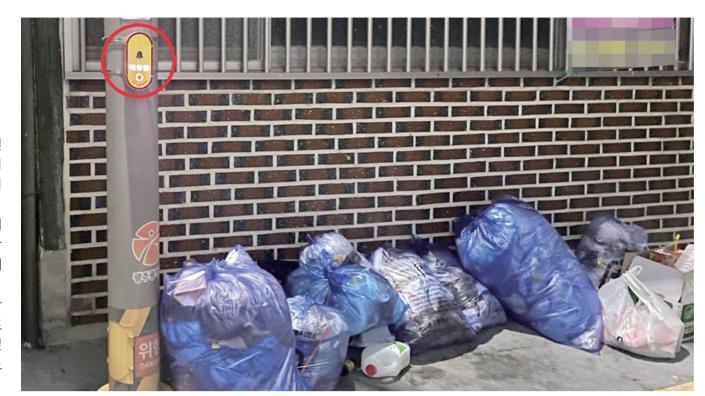
원룸촌 등 범죄우려지대 설치 전단지·쓰레기에 가려 무용지물 도입 10년 넘었지만 관리 허술 홍보 안돼 시민들 존재도 몰라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마련 된 여성여심귀갓길 제도가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관리가 미흡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장치 설치가 부족하고 홍보가 제대 로 되지 않은 탓에 상당수의 시민이 해당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체 계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지난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여성안 심귀갓길. 큰길을 벗어나 외진 골목으로 이어지는 해당 구역은 오전 시간임에도 길 을 걷는 사람이 없어 으슥한 분위기가 느 껴졌다. 한참을 걷다 보니 방범용(CC) TV와 비상벨이 설치된 전봇대가 보였다. '방범용 카메라 CCTV 녹화 중'이라는 안 내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비상벨 곳곳에 는 뜯어진 전단지의 잔해가 가득해 비상 벨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인근 주민 30대 서모씨는 "중학생 때 이 사를 오고 계속 이곳에서 살았는데 여성 안심귀갓길로 지정된 지 몰랐다"며 "비상 벨은 차량이나 전단지에 가려져 있어 잘 안 보인다. 실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



지난 19일 광주 동구 산수동의 여성안심귀갓길에 설치된 방범 시설 주변에 쓰레기 봉투가 버려져 있다. 빨간색 원 안이 비상호출벨.

판했다.

다른 여성안심귀갓길도 상황은 마찬가 지였다.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주택가. 여 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이곳 역시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된 전봇대가 보였 지만 주변에 쓰레기봉투가 가득 놓여 있 는 등 관리가 안 된 모습이었다.

'CCTV 작동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적 혀 있었지만 여성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학생정민주(23)씨는 "여성안심귀갓 길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불안한 마 음이 드는 건 여전하다"며 "저녁 시간에는 집에 혼자 가기 무서워 친구와 통화를 하 며 간다. 지난해부터 거리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범죄(뚜렷하지 않거나일반적이 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 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가 많아졌다는 소

식을 접하고 나서부터 더욱 불안하다"고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 가구를 대상으 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 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룸촌 등 범죄 우려 지역에 지정되고 있다. 해당 구역에 는 방범용 CCTV를 비롯해 위급상황에 누를 수 있는 비상호출벨 안내판, 가로등 등 방범 시설물이 설치되고 경찰의 순찰 이 강화되는 게 특징이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광주지역 여성안심귀갓길은 총 55개소 (동구 7개소, 서구 7개소, 남구 11개소, 북구 17개소, 광산구 13개소)가 지정돼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을 시작으로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현 장 체감도는 낮다.

안내 표지판이나 CCTV, 비상호출벨 등의 방범 시설물을 통해 안전하다는 심리 적 안정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홍보 도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구역마다 방범 시설 설치 편차가 큰 탓에 기존 취지와 달 리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경찰은 지자체, 관할서와 협조해 점검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1회씩 정기 적인 점검을 통해 구역의 적합성을 판단, 여성안전귀갓길을 재지정하고 있다"며 "구역마다 범죄 취약 요소가 다르기 때문 에 관할서 범죄예방진단팀이 지역에 적합 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남구에서 여성 안심 귀갓길 에 LED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와 의 협업도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며 "시민 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글·사진=정상아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전남 관통한 '종다리'… 내일까지 비

구례·여수·광양 호우 예비특보 내일 예상강수량 5~40mm 예보

한반도를 관통한 제9호 태풍 '종다리' 의 영향으로 22일까지 광주와 전남은 비 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열대저 압부가 21일 서해남부해상에서 북동쪽으 로 이동하면서 동쪽 지역에서는 매우 강 한 비가 내리겠다. 20일 밤을 기해 구례와 여수, 광양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 태로 태풍의 영향으로 22일까지 광주·전 남에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1 예상강수량은 30~80mm(전남남 해안, 지리산부근 100mm 이상), 22일 예 상강수량은 5~40mm로 예보됐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6~28도, 낮 최 고기온은 32~34도가 되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25~28도, 낮 최 고기온은 31~34도로 예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과 강우로 인한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및 농작물 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 다"며 "강수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 서다시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 중견건설사' 남광건설, 법정관리 신청

유동성 위기 극복 못해 지난 2014년 이어 두번째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광건설이 2014년에 이어 10년 만에 두번째 법인 회 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광건설은 지 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

남광건설 측은 본격적인 회생 절차 개 시에 앞서 자산 보전 포괄적 금지명령 신 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리면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는 조치 다.

남광건설은 최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법정관 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 해 3년 만에 회생 절차를 마쳤으나 또 다 시 회생 갈림길에 섰다.

1970년에 설립된 남광건설은 광주 동

구 동명동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 883억여 원이며 도급순위는 277위다.

그동안 서구청청사,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기독병 원, 하수종말처리장 위생매립장, 도시철 도 2호선 1차 사업 차고지 등 굵직한 공공 시설물 건립 사업을 주도하거나 공동 참

법원은 조만간 대표이사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을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 정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の景なぞを数人子李智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림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첩 지 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유 뎍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버 들 지 점 062)381-197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빚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